

YOUNG ARCHITECTS ON ARCHITECTURE, LEE JEONGHOON

젊은 건축가 건축을 이야기하다, 이정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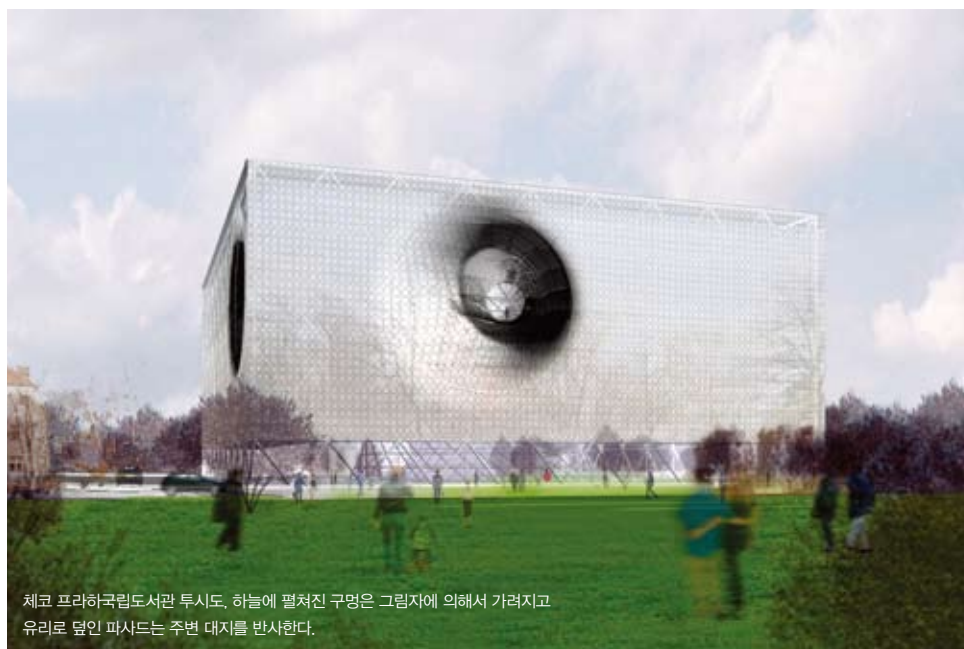
한국의 도시건축 개발은 지역의 특색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다. 어디를 가든 박스를 쌓아 올린 듯한 고층 빌딩이 줄지어 늘어선 이유도 사람이 우선시되는 건축이 아니라 투자와 임대 및 분양의 고리로 이루어진 개발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훈은 이러한 자본주의 건축계에 반하는 건축가이며, 고정관념을 탈피한 전위적인 행동파이다. 그리고 건축물이 새로운 공존을 위한 패러다임을 제시한다고 믿는다.



어떠한 건축가를 만나면 매년 자본주의에 잠식된 건축물이 즐비한 서울에 전위적인 건축을 설계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리고 그러한 건축이 도시환경을 바꿀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 여기서 요지는 '어떠한 건축가'라는 점이다. 이를테면 영동대교에서 바라본 한강의 밤은 섹시하다. 라는 사고가 마음 한켠에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 같은 건축가에게만 질문을 던진다는 얘기다. 건축가 이정훈도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다. 그는 서울을 감성 자체가 없는 타락한 도시라고 거침없이 얘기하지만, 누구보다도 서울의 감성을 찾기 위해 애쓰는 건축가이다. 그래서일까? 그의 건축은 반지르르 윤이 날 정도로 우아하거나, 오랜 세월이 지나 자신의 멋을 아는 노인사처럼 장중해 보인다. 건축물이라 단정 짓기보다 마치 하나의 전위예술품 같다. 찬찬히 보고 있다면, 이정훈이란 사람의 감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고, 그가 담아낸 이야기를 상상하게 된다. 그렇다고 그가 건축의 대가라는 얘기는 아니다. 오히려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전위적인 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건물에 구멍을 낸 체코 프라하 국립도서관과 빛의 흐름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풍광을 담아낸 용인 헤르마 주차빌딩은 어떤가? 선은 유려하고 형태는 대범하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압도하거나 자연을 훼손하여 경관을 해치는 건축물은 아니다.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던 형태를 깨부수지만 그 지역의 특성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나무나 쇠 따위로 거푸집을 만들 때 주형틀을 사용하듯이 이정훈의 건축물은 새로운 환경의 기틀을 마련하는 건축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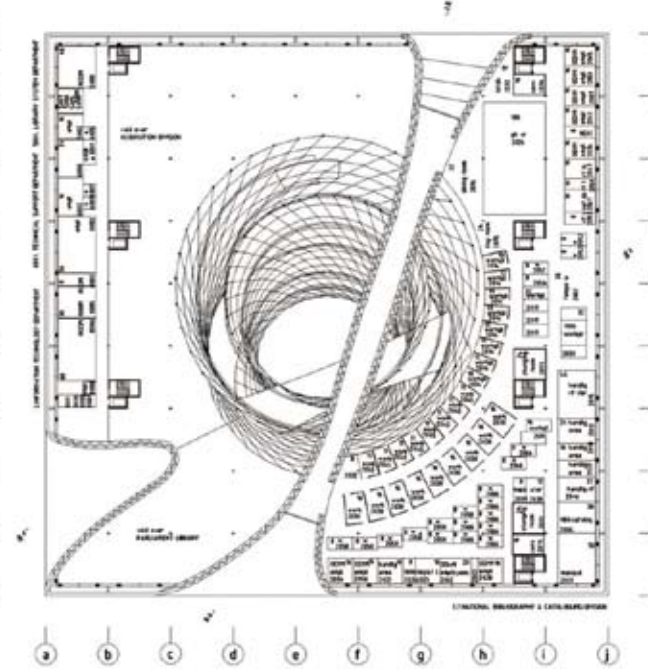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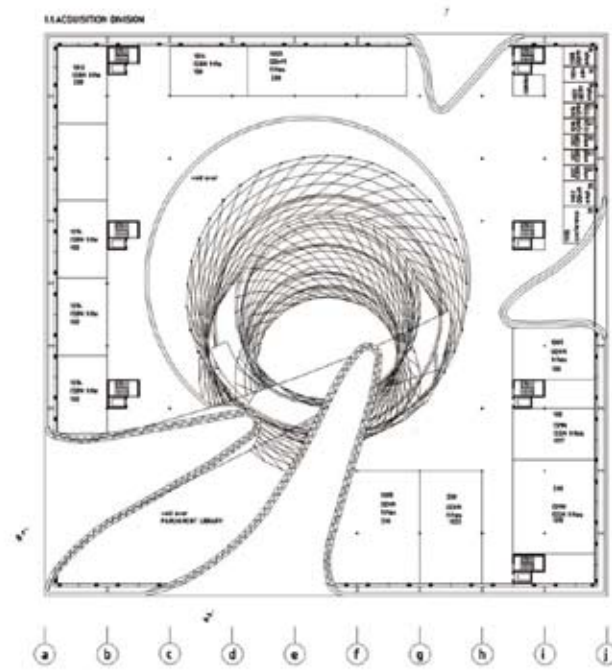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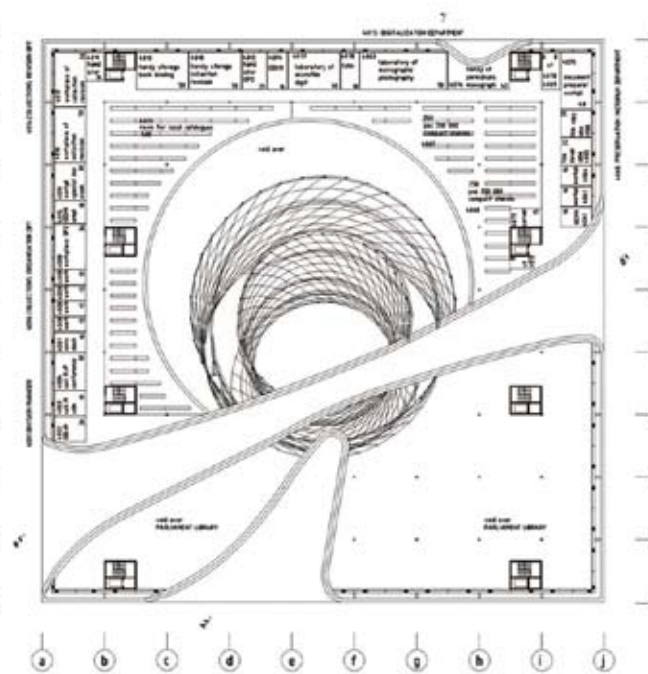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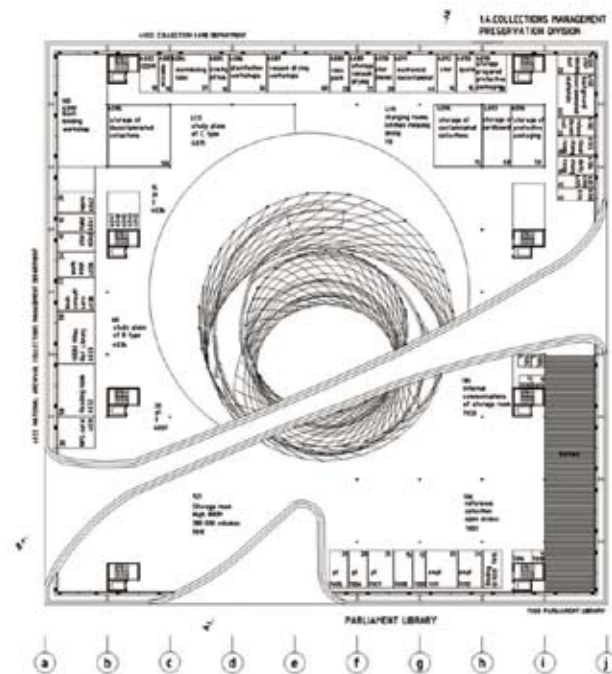
체코 프라하 국립도서관은 자신이 프랑스에서 정립한 가감법을 적용한 최초의 프로젝트이다. 가감법이란 비움과 채움을 전제로한 채움을 의미한다. 가령 물속에 공기방울이 있다면 공기방울은 물로 가득 채워진 것일까? 비워진 것일까? 이 사소한 물음에도 우리는 명료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에티오피아 원주민들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 돌에 커다란 구멍을 뚫었다. 구멍을 뚫는 행위는 비워내는 거지만, 비움으로써 교회가 생기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종교활동을 할 수 있었다. 이처럼 가감법의 전략은 비움과 채움의 어떠한 모호한 경계지점에서 새로운 공존을 위한 패러다임이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설계 방법이다. 그리고 그러한 가감의 전략을 활용한 것이 바로 체코 프라하 국립도서관의 '하늘에 구멍을 내다(The Hole in the Sky)'이다. 그는 "처음 설계를 계획했을 때, 채워진 건물 속에 순수하게 투명한 여백을 남기고 싶었다. 그러한 이유로 구멍을 냈다. 구멍은 완전한 투명성을 지녔



체코 프라하 국립도서관 투시도. 하늘에 펼쳐진 구멍은 그림자에 의해서 가려지고 유리로 덮인 파사드는 주변 대지를 반사한다.



야간 투시도. 구멍은 물리적인 비움의 공간이지만 야간에는 빛에 의해서 채워져 도시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변모한다.



평면도. 두 개의 축에 의한 구멍은 매스를 가로지르며 공간을 구분하고 프로그램을 배열한다.

지 않나? 근데 재미있게도 해가 뜨니, 빛에 의해 구멍은 어떻게 채워지기 시작하더라. 비우려고 했는데 빛의 그림자로 채워지는 결과를 낳았다. 건물 외형 또한 그러하다. 외형을 가득 채우기 위해 불투명 반사유리를 사용했다. 앞쪽의 숲을 고스란히 담아내기 위해서. 하지만 하늘과 대지의 이미지에 의해서 반사된 반사유리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곳에 풍광이 실재하는 것처럼 비추어진다. 비우려던 곳은 채워졌고, 채우려던 곳은 비워졌다. 그 순간 나는 경계를 알 수 없는 '모호함'

을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애초에 생각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러자 새로운 시각이 열리더라. 이러한 새로운 시각이 화두가 되어 지속적인 이슈가 된다면 분명 도시는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거라 믿는다"라고 말한다.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진행했던 용인 헤르마 주차빌딩은 전면부의 조경 공간을 새로운 형태로 디자인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차빌딩은 철근구조물이라는 선입견을 깨트린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하천



용인 헤르마 주차빌딩 동쪽전경.

으로 향한 바라보는 삼각형 형태의 전면부는 60도부터 150도까지 다른 각도로 구성되며 총 80여 개의 형태로 빛과 도시의 풍광을 반사하는 역할을 한다. 해가 뜨는 아침에는 직광을 받아 표피의 색이 미세하게 백색을 띠고 정오에는 간접광으로 순수 보랏빛을 드러낸다. 석양이 지는 오후에는 노을을 반사하여 황금빛으로 변모하고, 저녁에는 내부의 조명과 외부의 네온사인을 반사, 이색적인 풍광을 연출해 아름다운 외관을 자랑한다. 이에 대해 이정훈은 “난 주차빌딩도 다른 형태, 다른 자극, 다른 감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시작한 프로젝트였고, 그러했기에 더욱더 어려웠던 프로젝트로 기억된다”라며, “주차장도 공공재다. 큰 역 근처 환승 주차장의 살벌한 풍경을 떠올려보라. 수많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며 그곳을 지나 다닐까 생각하면 안타깝다. 도시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가 끼어들 틈이 없다. 주차장이든, 상가든 불쌍사나운 건물로 짓는 데는 구조적인 이유도 있다. 난 이러한 환경을 타파하는 데 헤르마 주차빌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했다. 작게 보면 주차빌딩일 뿐이지만, 넓게 보면 이러한 주차빌딩도 사람들에게 새로운 감성을 줄 수 있고, 한 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말한다. 이처럼 이정훈은 현재와 타협하는 건축가이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도시 환경을 위해 새로운 화두를 던지는 건축가이며 한국의 도시들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전달해주는 공간, 그리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여백으로써 존재하는 세상이 온다고 믿는 낭만주의자이다. 그리고 평생 짓는 것을 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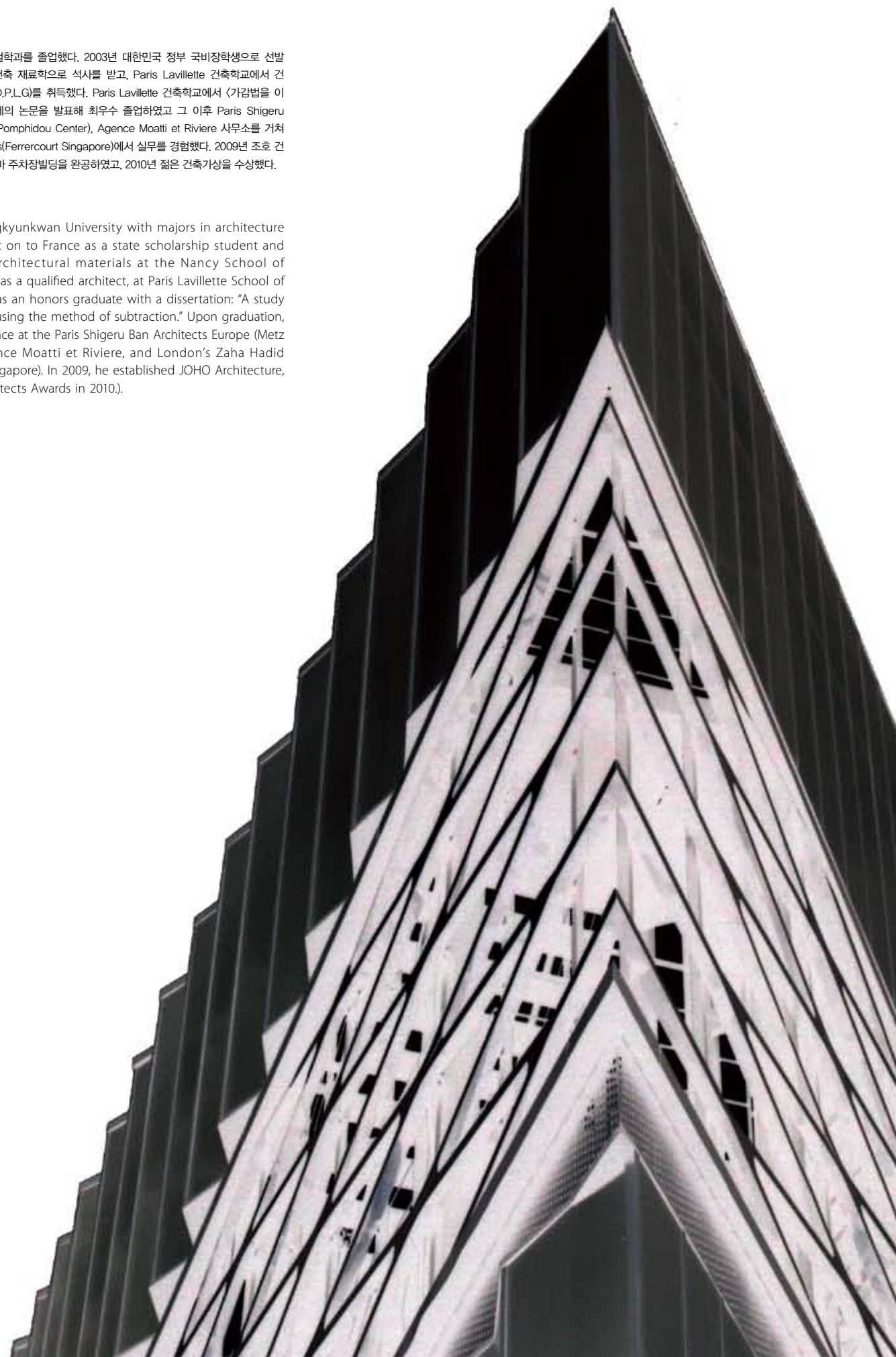
기고 싶은 사람이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조호란 이름을 썼고, 한국에 와서 조호 건축사무소를 차렸다. 조호는 지을 조(造)와 좋아할 호(好)의 합성어로 프랑스 시절 그의 또 다른 이름이며, 생이 마감할 때까지 짓는 일을 즐기고 싶다는 그의 신념이다. 조호가 추구하는 것은 건축에 대한 선입견을 깨는 거다. 체코 프라하 국립박물관과 용인 헤르마 주차빌딩처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렇게도 건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다. 새로운 공간은 지역의 분위기를 바꾸게 되고, 변화는 곧 좋은 기운으로 발전되기 마련이니까. 나는 서울이 파리 같은 도시가 될 수도 있고, 한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도시를 지닌 나라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반복해나간다면 무미건조한 한국의 도시에도 숨을 쉴 수 있는 여백이 생겨날 거다. 그리고 우리는 보다 더 사람 냄새 나는 거리를 걷게 되겠지.” 거침없이 내뱉는 그의 언어에는 건축계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에 대한 해법이 담겨 있다. 언변은 전위파처럼 강하며, 신랄하게 건축계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를 꼬집을 만큼 용감하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대안을 제시할 만큼 영특하다.

Lee Jeong Hoon

성균관대학교에서 건축학과와 철학과를 졸업했다. 2003년 대한민국 정부 국비장학생으로 선발돼 도플, Nancy건축학교에서 건축 재료학으로 석사를 받고, Paris Lavillette 건축학교에서 건축 이론석사 및 프랑스 건축사(D.P.L.G)를 취득했다. Paris Lavillette 건축학교에서 〈가감법을 이용한 설계방법론 연구〉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해 최우수 졸업하였고 그 이후 Paris Shigeru Ban Architects Europe(Metz Pompidou Center), Agence Moatti et Riviere 사무소를 거쳐 London Zaha Hadid Architects(Ferrercourt Singapore)에서 실무를 경험했다. 2009년 조호 건축사무소를 설립하였으며, 헤르마 주차장빌딩을 완공하였고, 2010년 젊은 건축가상을 수상했다.

Lee Jeong Hoon

He Graduated from Sungkyunkwan University with majors in architecture and philosophy. He went on to France as a state scholarship student and completed an MA in architectural materials at the Nancy School of Architecture and a DPLG, as a qualified architect, at Paris Lavillette School of Architecture where he was an honors graduate with a dissertation: “A study on design methodology using the method of subtraction.” Upon graduation, he had hands-on experience at the Paris Shigeru Ban Architects Europe (Metz Pompidou Center), Agence Moatti et Riviere, and London’s Zaha Hadid Architects (Ferrercourt Singapore). In 2009, he established JOHO Architecture, and won the Young Architects Awards in 2010).



심각형 패널로 이루어진 입면과 불꽃한 입면, 두 개의 다른 입면구성 머리가 만나는 모서리 부분 전경.



The development of urban architecture in Korea has little to do with regional characteristics. Its development is a product of linking investments with leases and sales, not by putting people first. The results are skyscrapers lined up like dull monolithic boxes everywhere you go. Architect Lee Jeong Hoon, however, abhors such capitalistic architecture. He is an avant-garde activist, continually thinking outside the box, and believes that structures present a paradigm for a new coexistence.

What kind of an architect would be able to design avant-garde architecture in Seoul, a city that is overrun with a myriad of cookie cutter buildings? Would such a renegade be able to change the face of the urban environment? The point here is "what kind of architecture" would it take? In

other words, I'd like to spring these questions on architects who seem to have the idea that the night views of the Han River, as seen from the Yeongdong Grand Bridge, are sexy, so to speak. Architect Lee Jeong Hoon belongs to such a school. He maintains that Seoul is a depraved city, void of any sensitivity. He is pursuing greater efforts than any other person, however, to restore the city's sensitivity. His works are elegant, yet solemn, like that of a dignified old gentleman who has learned to appreciate style over time. They are like avant-garde works of art. They make you feel the architect's emotions and imagine his stories contained within. The Czech National Library in Prague has holes in its building, while the Herma Parking Building in Yongin reflects its surroundings that change every moment with

the flow of light. They are distinguished by their sleek lines and bold shapes. Still, they are not overwhelming, nor do they spoil the scenic beauty or damage nature. They have broken with conventional forms but have managed to retain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ir region. Architecture by Lee lays the groundwork for a new environment.

The national library of the Czech Republic is the first project to which he applied his method of addition and subtraction, first established in France. This method is based on the concept of "filling" concurrent with "emptying." If there are air bubbles in water, are they filled with water or emptied by water? The answer is elusive. The natives of Ethiopia used to make holes in big rocks to build a church. The act of making holes is "emptying," but in the process, a church is "filled" with people engaging in religious activities.

Such a strategy of addition and subtraction as a design method, demonstrates the possibilities for a new paradigm to develop which enables a fresh coexistence, perched on the conceptual border of empty and full. He has utilized such a strategy for his "Hole in the Sky" work at the Czech National Library in Prague.

"I wanted to leave pure, transparent spaces inside the filled building when I first designed it. That's why I made the holes, thinking they would be completely transparent. But then, interestingly, the holes began to be filled with darkness by shadows as the sun rose. I used opaque reflective glass for its exterior to create the filled images.

The glass carried the scenes of the forest in the front, as well as the images of the sky and the earth. This special glass secured my objectives of transparency, while at the same time reflecting the world around it as it actually exists. At that moment, I felt a sense of "ambiguity" with these undefined borders, and was forced to give up all of my original ideas. This opened up new perspectives for me, as I believe viewpoints such as this should also be able to bring about certain changes in our cities as well."

The Herma Parking Building, his first project in Korea, is acknowledged as breaking the stereotype that parking buildings must be built from reinforced concrete. Its triangle-shaped exterior facing a river, reflects light and its urban surroundings in over 80 different forms and angles

ranging from 60 degrees to 150 degrees. The building boasts beautiful looks, as its facade takes on a fine white color in the morning under the direct light as the sun rises, evolving into a pure purple as noon approaches. At sunset, it transforms itself into a golden color, reflecting the glow of the setting sun, and in the evening, it presents an extraordinary contrast of interior scenes illuminated by the building's lights, against the neon reflections on its exterior. He remembers thinking that "parking buildings should also have different forms, stimulus and sensibilities. The project was begun with such a premise and that's perhaps why it was all the more difficult." "Parking lots are also public properties. Think of jungle-like scenes of transit parking spots nearby big subway stations. I wonder what people think about them? There are of course structural reasons why parking lots or shopping malls turn into ugly buildings, but my wish for the Herma Parking Building was to break through those stereotypes."

He wanted to show that parking buildings can also offer new practicalities to people, while at the same time becoming landmarks of a city. The architect is a romantic person who continually brings up new visions for urban environments. He believes that Korean cities should be able to inspire people and exist as blank spaces in which they can rest in comfort someday. And one more thing, he wants to enjoy building things as long as he lives. That's why he established an architectural firm, JOHO Architecture, when returned home from France, naming it after his nick name "JOHO," a compound word meaning "like" and "build."

"What JOHO is seeking is to think outside the box. I want to create buildings that are built differently, such as the national library in Prague and the parking building in Yongin. These new spaces will change the atmosphere of their regions and these changes will develop into positive energy. I believe someday, Seoul can be a city like Paris and Korea can be a country with some of the most beautiful cities in the world. This transformation will create blank spaces within our dull Korean cities, enabling us to breathe and walk along more humane streets."

Contained in his statement are answers to capitalism that dominates the architecture industry. After all, he is strongly suggesting necessary alternatives that one would expect of an avant-gardist.